

2월말 민자사업 실적, 계획대비 300% 초과달성

기재부, 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

지난달 말 기준 민자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300%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8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점검을 위해 개최되는 최초의 회의로 민간투자사업의 집행 목적을 공유해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민자사업의 집행 규모는 5년내

최대치인 총 5조7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월 민자사업 집행실적을 점검결과 지난달 말 기준 민자사업 집행실적은 6900억원으로, 당초 집행계획인 1700억원을 300% 수준 초과달성했다.

대부분의 주무관청이 목표금액 대비 초과 집행을 달성한 가운데 일부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로사

항 해소 등을 통해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 5000억원을 발굴했다.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중인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완료한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최초제안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등 개량운영형 사업의 판단기준과 모델

을 제시해 사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수요예측제조사와 민자적격성제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 270일이 소요되는 수요예측조사를 150일로 줄이고 수요예측조사 종료 이후 진행되는 민자적격성제조사 소요 기간도 270에서 210일로 줄인다.

김윤상 차관은 "분기 집행도 차질 없이 추진 민자사업의 적기 준공을 통한 국민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지난 7일 익산에 위치한 삼기 부화장 옥상에서 태양광 발전 준공식을 진행했다.

하림, 태양광 발전 추가 준공

삼기·김제·고창 부화장에 태양광 패널 추가 설치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지난 7일 익산에 위치한 삼기 부화장 옥상에서 태양광 발전 준공식을 진행하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래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림은 작년 본사 가공식품 공장 옥상에 90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한 것에 이어 이번에 삼기·김제·고창 부화장에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적 캠페인인 RE100 사업에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됐다.

준공식에는 정호석 대표이사과 (주)에이원E&H 김윤구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방식을 확립해 2050탄소중립 정책

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총 473.56KW 규모로 생산 가능한 연간 전력은 약 62만KW에 달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88.728CO2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본사 가공식품 공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합하면 연간 약 891.308CO2 이상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거액의 탄소세 등 각종 패널티를 받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모든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 하림이 RE100에 앞장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역삼=이재춘 기자



"가축 분뇨 친환경적 처리 힘써줘서 감사"

송호석 전북환경청장, 김제자원순환센터 우분연료화 현장 방문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 8일 우분연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김제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였다.

김제자원순환센터는 축사의 우분(牛糞)을 고체연료로 만들기 위해 9억원을 투자하여 연료화 시설을 설치 중이며, 3월말 시설 준공 시, 연 2,920톤의 고체연료가 생산되어 관내의 OCI SE(주), SGC에너지 등에 발전 난방 원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송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가축 분뇨의 친환경적 처리에 힘써줘서 감사하다며, 우리 환경청도 우분 연료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조재호 농진청장, 7일 꿀벌위도격리육종장 방문

꿀벌 품종 보급 위한 유전자원 보유 현황·보급 계획 살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에 있는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을 방문하여 꿀벌 품종 보급을 위한 유전자원 보유 현황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7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에 있는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을 방문하여 꿀벌 품종 보급을 위한 유전자원 보유 현황과 보급 계획을 살펴보았다.

과 보급 계획을 살펴보았다.

조 청장은 최근 유행 전후 꿀벌 감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생산성이 우수한 품종을 보급하고자 격리된 섬에서 유전자원과 품종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품종 증식 환경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꿀벌 우수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해 현재 양봉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꿀벌 우수 품종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현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양봉산업 발전에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이 꿀벌 유전자원 관리와 우수 품종 육성·보급을 담당하는 국가 유일의 연구기관으로 꿀벌 우수 품종 보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바이오진흥원,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바이오진흥원 및 입주기업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저출생과 고령화, 전염병 등으로 더욱 심화된 혈액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2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져

온 헌혈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바이오진흥원 및 입주기업들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생명을 살리는데 필수적인 헌혈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더욱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참여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생명 나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옥기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북농협, "세계 여성의 날 여성들 꿈·도전 응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NH전북농협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노조위원장)과 함께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 한실어메달(대표 박연옥),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을 방문하여 여성들에게 빵과 잠미꽃을 나누며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북여성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부 동참을 유도하고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리플렛 등을 배부하며 고향사랑 기부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 여성의 날은 지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했다.

지난 1977년 유엔에서 3월 8일을 세

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빵은 남성과 비교해 저임금에 달린 여성들의 생존권, 장미는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의미한다.

김영일 본부장은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정착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은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큰 관심 증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향사랑기부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기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옥기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